

공개된 정보

2019년 1월 11일 오후 6시 40분, 강원도 홍천.

산장 앞에서 두 남자가 눈을 맞으며 서 있다. 두 사람은 10분 전 이곳에서 만났다. 먼저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신희성, 자체개발 스마트폰인 'U' 시리즈와 이 기기의 전용 앱인 '기억금고'로 유명한 유희전자의 사장이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김용희. 유명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두 사람은 오늘, 보험회사 UH라이프의 부회장 최시원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산장 진입로 끝에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아는 얼굴이다. 최혜민, 시원의 여동생이다.

얼마 전만 해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두 사람 앞까지 뛰어온 혜민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걸었다.

“안 들어가세요? 부회장님 안에 있을 텐데?”

용희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고, 희성이 대답했다.

“없는 모양이던데? 문이고 창문이고 다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혜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현관 문고리를 잡고 두어 번 당기려고 시도했다. 문은 확실히 잠겨있었다. 혜민은 문 열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두꺼운 갈색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걸어왔다. 소개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산장 관리인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차림일 것이다. 관리인은 묵묵히 스페어 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일행은 관리인을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깜깜했다.

“어? 불이 나갔나?”

혜민이 중얼거리는 사이 관리인이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금세 거실이 환해졌다. 그때 혜민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혜민이 현관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핸드백을 뒤지는 사이, 용희는 냉장고를 뒤적거렸고 희성은 빈방으로 들어갔다.

“네 부회장님. 여보세요?”

통화 중인 혜민의 목소리에 희성이 방에서 불쑥 머리만 내밀고 물었다.

“형이야? 어디래?”

“모르겠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끊겼는데?”

그때 용희가 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관리인을 불렀다. 그때까지 말없이 차단기만 만지던 관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머니에서 스페어 키를 꺼냈다. 욕실이 열리자, 용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바로 따라 들어갔다. 시원은 욕조 속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원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희성이었다. 희성의 눈은 욕조 바깥의 콘센트로 향해있었다. 콘센트에는 2개의 스마트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 반대쪽 끝은 물이 찰랑거리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관리인은 욕실 전기를 차단하고 오겠다고 다시 차단기로 돌아갔다. 관리인이 돌아오자, 혜민은 서둘러 시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용희는 패닉 상태에 빠진 혜민을 제지하고 시원의 몸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망 시간은 방금 전. 어느새 밖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관리인이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날 오전은 되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이 제법 쌓여 있어 차가 산길을 오르기가 힘든 데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밖은 어두웠다. 일행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각자 한 명씩 방을 잡아 들어갔다. 가려온 짐을 방에 대충 풀어놓고, 사람들은 거실에 다시 모였다. 이때가 8시. 관리인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들 식욕은 없었지만 일단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때,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모두에게 똑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 번호는 최시원의 번호. 내용은...

“5명이 모여서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몇 명일까요?”

모두가 깜짝 놀라 다시 욕실로 돌아갔지만,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죽은 자가 문자를 보냈단 말인가? 그보다, 살인자라고?



최혜민(29)

최혜민(29) 여

→ 당신은 범인이다.

* 승리조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본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UH그룹 가문의 6남매 중 여섯째다. 여섯째라 해도 어머니의 재혼으로 6남매에 합류했을 뿐이다. 어머니가 재혼한 것은 당신이 21살이던 2011년. 그 후 어머니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인 중산이 재혼한 목적은 새 자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그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은 생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때때로 히스테리를 부리고는 했다. 5년 전, 어머니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자살은 이 집에 들어온 후 어머니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행한 유일한 일이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분명 그 옥상에서 아주 험껏 뛰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최소한 한번은 '도약'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심장이 멈춘 것은 결과일 뿐이다. 어머니처럼 죽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처럼 살 수는 없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다. 진 병원에서 사건은 결국 김가원의 체포로 막을 내렸다. 김가원의 범행은 유지하고 경찰한 방법이었지만, 명쾌했다. 이찬호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찬호를 죽인다. 김득진이 나를 방해하니, 김득진을 몰락시킨다. 김가원의 명쾌한 방식에 비해 외부에서 힘을 빌리겠다는 당신의 계획은 흐리멍덩하기 짝이 없었다. 이기려면, 역시 돌아가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UH그룹은 후계자 경쟁 구도가 한창이었다. 중원과 시원을 축으로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신임은 시원이 받고 있었지만, 파벌은 중원이 훨씬 컸다. 중원의 라인인 내부에서 '회장파'로, 시원의 라인인 '부회장파'로 불리고 있었지만, 부회장파라고 해도 딱히 제대로 된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열사 임원들은 대부분 회장파였고, 집안에서도 믿음만한 사람들은 다 회장파 내지는 중립이었다. 명정한 다섯째가 그나마 시원의 총복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기에 당신은 시원을 찾아갔다. 시원은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머릿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조력자를 자처하는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당신의 합류로, 최소한 6남매 내에서는 2:2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회장파와 부회장파가 2:3 구도로 바뀌었다. 형식적 숫자에 불과하지만, 시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시원의 신임을 통해 당신이 얻은 더 큰 성과는 기억금고 시스템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기억금고는 2016년에 유홍전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앱이다. 당신이 기억금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앱에 투자한 것이 UH라이프와 UH계약이기 때문. 두 회사가 이 투자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정보의 공동 관리였다. 바로 기억금고에 쌓이는 데이터들, 즉 고객의 기억 관리를 협력관계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 시스템에 슈퍼관리자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유용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다. 시원이 당신을 받아들여 준 것은 부회장파가 회장파에 비해 약했기 때문이지만, 당신이 돌아온 것은 부회장파라는 우산 속에 숨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원한 것은 부회장의 세력을 이용해 회장파를 이기고 권력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회장파의 힘이 더 커져야만 했다. 당신은 부회장의 파벌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맥들을 조사했고, 이들을 끌어들이거나 흡수해서 세력을 키울 방법들을 연구했다.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책들을 시원에게 제안했고, 시원은 그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유홍전자를 흡수해 UH전자를 새로 세운다는 안도 당신의 제안이었다. 대부분의 밑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원이었다. 시원은 확실히 최중산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회장파와의 세력 차이를 메꿀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신임은 아니었다. 그저 첫째보다 셋째가 좀 낫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애매한 크기가 당신의 계획에 있는 구멍이었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두 달 전이었다.

두 달 전, 당신은 시원과 함께 새로 매입할 예정인 이 산장에 찾아왔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장 관리인인 박진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사진으로는 여러 번 본 얼굴이기에 당신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시원의 묘한 표정이 당신의 직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는 그의 이름은 박진인 아니다. 최진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니 어쩌면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 그 순간 당신은 위험한, 그렇지만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다. 그 계획에 시원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다.

오늘 모임을 시원에게 제안한 것은 당신이었다. 시원은 어제 이 산장에 도착해 미리 짐을 풀었고, 당신은 오늘 도착했다. 오후 3시에 산장 매입과 관련해 터미널에서 리모델링 업체와 미팅을 잡아두었기에 터미널에 먼저 들렀다가 오후 4시 30분쯤 산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 샤워를 하고 나온 시원에게 주스를 권했다. 주스에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들어있었다. 졸피뎀의 출처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은 시원 본인이고, 처방을 해준 것은 의사인 김홍희였다. 물론 시원에게 졸피뎀을 권한 것은 당신이었다. 간호사 출신이었기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인이었다.

주스를 마시고 잠시 후, 당신은 깊이 잠든 시원의 옷을 벗겼다. 알몸의 시원을 끌고 욕실로 가서 험겁게 시원의 몸을 욕조에 넣은 후, 욕조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준비해 온 스마트폰 충전기 두 개를 꺼냈다. 하나는 유홍전자에서 나온 신상품 급속 충전기, 하나는 저가의 이름 없는 충전기. 당신은 유홍전자의 급속 충전기 일부에서 누전과 과전류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여러 개의 샘플을 구입해 테스트했다. 그리고 이날 가져온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충전기였다.

욕조에는 확실히 콘센트가 있었다. 당신이 주문한 대로, 전기공사가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지시는 시원을 통해 했지만, 먼저 두 개의 충전기를 욕조 근처에 꽂은 다음, 반대쪽 끝을 욕조 속으로 드리웠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산장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시원이 가져온 위클리메디컬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시원의 방에는 누구 것인지 모를 충전기가 꽂혀 있었다. 특별한 문제 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당신은, 시원의 스마트폰을 쟁겨 밖으로 나왔다. 이때가 5시 30분. 당신은 산 뒤쪽으로 돌아 산장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고, 시원의 스마트폰을 쟁겨 밖으로 나온 다음, '누전차단기가 이유 없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몇 개의 예약 문자를 추가로 걸어놓고 당신의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해놓은 다음, 핸드백 속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넣고 7시가 거의 다 돼서 산장 입구로 돌아갔다.

박진이 환관문을 열어주고 나서, 당신은 어두운 거실로 들어서며 박진에게 들리도록 짐짓 혼잣말을 했다.

“불이 나갔나...?”

박진은 ‘아차’ 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세 차단기를 올렸다. 이 순간, 아마도 시원의 숨은 끊어졌을 것이다. 당신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기 전에, 핸드백 속에 손을 넣고 시원의 스마트폰에서 단축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당신의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자 다소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폐닉에 빠진 척하며 자연스럽게 시체에 다가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충전기 쪽으로 쏠린 사이에 당신은 슬쩍 시원의 스마트폰을 물속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그가 충전 중인 스마트폰을 욕조에 빠뜨리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김홍희의 졸피뎀으로 시원을 재웠고, 신회성의 불량품으로 시원을 죽였다. 그 죽음의 스위치를 올린 것은 박진이다. 박진, 김홍희, 신회성, 당신에게 이 세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원이 죽은 지금, 당신은 그들을 끌어들이 무기도 없고 충분한 신뢰를 쌓을 시간도 없다.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두침침한 사슬이다. 지금이 도약의 타이밍이다.